

“한국야구, 세대교체 미흡” 쓴소리

김인식 KBO 총재 특별보좌역, 5회 WBC 성적 두고… “교육방식도 문제”

역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세 차례 감독을 맡았던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특별보좌역이 1 리운드에서 탈락한 5회 WBC 성적을 두고 세대교체 미흡으로 인한 선수자원 부족과 교육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했다.

김 특보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광현이 현재까지 여기서(국가대표를) 하고 있다. 그 선수들이 대표선수를 한 게 벌써 17년 정도 된다”면서 “이 선수들이 나이가 35~36세다. 17년 동안 대표선수를 하는데 왜 이 선수들을 능가하는



선수가 안 나오는가. 다른 점은 선수가 못 따라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특보는 지도 방식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금 등감을 하 고 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하는 과정, 프로에 와서 (교육)하는 과정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며 “왜 17년(이나 된) 그런 선수를 못 끌어

라가느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투수 육성과 관련해서는 “투수가 하체 훈련을 완전히 완벽히 해야 한다. 투수는 하체가 튼튼해야 잘 던진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돌리기를 많이 하고 가령 계단 위기 라든가 이런 것을 수없이 해야 한다”면서 “지금 실내에서 하는 러닝머신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나이는 얘기가 않느냐 하지만, 아는 얘기를 왜 못 하는가 그것을 물고 싶다”며 “프로에서도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을 엄격하게 교육하지 못하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특보는 “(교육자가) 말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선수에게 별별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WBC 호주전을 두고 김 특보는 투수 운용 실패라고 평가했다. 김 특보는 ‘야번(조 편성)’은 조금 우리가 자신 있는 조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호주전에만 전력 투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돌이켰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게 투수 부분이다. 투수 로테이션이라든가, 투수 핸들을 좀 못한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뉴스



2023 실업볼링연맹 전국대회, 남원서

오늘부터 11일까지

남원에서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간 전국 실업팀 300여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실업볼링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4~5일 공식연습을 가질 예정이며 6일부터 9일까지 남녀 개인전, 2인전 3인전이 각각 열리고, 10일부터 11일까지는 미스터즈 및 5인조 경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10일과 11일 펼쳐지는 5인조 결승과 미스터즈 경기는 SBS SPORTS-TV 채널을 통해 오후 1시부터 생중계, 볼링인구의 저변확대와 전문선수들의 화려한 기술을 보는 재미도 끊기지 않도록 기대된다.

지양근 교육체육과장은 “전국을 대표하는 실업볼링대회가 지역에서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볼링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가 선수 모두가 머무르는 동안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별 선수권’ 전주서

6~9일 전주빙상경기장 지상 링크서… 260여명 선수단 참여

제65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별 선수권 대회’가 오는 6일부터 9일 까지 나흘간 260여명의 선수단들과 함께 전주빙상경기장 지상 링크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북도빙상경기연맹이 주관

하는 전국대회로 개최된다.

대회 종목은 남/녀 싱글, 페어, 아이스댄스로 초·중·고 일반 주니어, 시니어 등으로 나뉜다.

공단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 직전까지 최상의 빙질 유지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대회 기간 내 일반 이용객과 강습생은 지하 링크에서 평상시와 같이 빙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빙상에 대한 시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익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Amazing 익산 2023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한 익산시 육상부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익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Amazing 익산 2023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여자 일반부 여자 800m 오혜원 선수는 2분06초9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1500m 경기에서도 3위를 차지하 며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남자 해머던지기에 출전한 황미르 선수는 59m64를 여자 원반던지기에 출전한 신유진 선수는 53m45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주형 육상감독은 “지난 겨우내 전지훈련에 쏟아 냈던 선수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시즌 초반부터 더욱 훈련에 매진하여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전했다.

정현율 시장은 “우리 익산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부상없이 선전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여성 선수만을 위해 첫 제작’

나이키, 여자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공개

7월 개최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서 활용



오는 7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대표팀의 새 유니폼이 공개됐다.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공식 후원사 나이키는 3일 여자대표팀을 위한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은 여성 선수만을 위해 처음 제작된 것으로 선수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을 반영했다.

인체 스캔 및 3D 툴을 통해 여성 선수들의 움직임과 체형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선수들이 겪는 고충이나 세세한 요구 조건을 보완해 적용했다.

봉제선 허리 밴드, 팝자국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이키의 최첨단 기술 소재 플랫폼 드라이-핏(Dri-FIT) ADV를 적용해 소재를 패션 단위로 설계했다. 아바타를 활용해 디자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활동성과 통기성을 높였다.

특히 역대 유니폼 중 처음으로 월경혈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너너 다크 프로텍션: 파리어드(Leak Protection: Period)가 적용됐다.

이번 유니폼은 80% 이상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졌으며 제작 단계부터 폐단 효율성을 85%까지 올리고 디지털 샘플을 사용해 원단 손실을 크게 줄였다.

대표팀 로고, 나이키 로고 및 장식들은 모두 나이키에서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모아 만드는 나이키 그라인드(Nike Grind) 소재로 제작됐다.

디자인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한류에서 영감을 받아 깊은 세

대의 뜨거운 에너지와 자기 표현문화를 투영했다.

이번 유니폼을 위해 개발된 맞춤형 서체와 국가대표 마크도 눈여겨볼 요소다.

서체는 서예를 기본으로 백호 문양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제작됐고, 국가대표 마크는 백호 문장을 바탕으로 KOREA 문구를 더해 상징적인 의미를 보탰다.

홈 유니폼은 전통적인 붉은색 바탕에 생동감 있는 분홍색으로 포인트를 더해 대표팀의 깊은 투지를 표현했다. 하의는 한국 전통의 수채색과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흐름이 줄무늬로 이뤄졌다.

원정 유니폼은 정제된 대칭과 균형미를 강조했다. 상의는 흰색 배경에 태극기의 색상을 사용했고, 절개 부분에는 파랑색과 빨강색을 적용해 대비와 조화를 중시한 전통 미학을 담았다.

콜린 벤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7월과 11일 잠비아를 상대로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2일 소집 훈련에 돌입했다.

월드컵 본선에서 독일, 콜롬비아, 모로코와 경쟁한다. /뉴스

진안홍삼배 전북동호인 테니스대회 성료

진안군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진안군체육회관 등 5개소에서 열린 2023년 진안홍삼배 전북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 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선수 및 임원 등 관계자를 포함하여 300여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아름다운 자웅을 겨뤘다.

이번 경기는 예선전은 각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로 진행되고, 본선부터 진안군 디자인 테니스장에서 치러져 참가선수들은 미야산 등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관내 식당 등을 이용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